

의대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목포 정치권 책임론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후폭풍이 목포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36년 숙원 사업이 단 13점 차이로 좌절된 데 대한 정치권의 치밀하지 못한 유지 전략과 사후 대응을 향한 거센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익·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시·도의원 등 목포 지역 정치권은 지난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역 정치권은 “각하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

된 것이 아니라 목포대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추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목포문화연대도 같은 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이 곧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요건(처분성, 법률상 이익) 등 절차적 문제에 국한된 것일 뿐, 실제 심사 기준과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목포문화연대는 13점에 불과한 점수 차를 언급하며 “짧은 준비 기간에 구성된 외부 심사기관과 평가위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

정치권 공동대응 예고에도 시민 반응 싸늘

결정적 시기 정치력·전략 부재 질타 쇄도

국회의원·민주당 중앙당 지원 부족도 비판

“서남권 소외·누적된 분노 폭발” 한목소리

“강성휘 시장, 부지 확보에만 안주” 지적

를 거쳤는지, ‘부지 확보의 확실성’ 기준이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전남광주특별시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뒤늦은 결속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결과 확정 후 이어진 사발과 단식, 항

의 방문 등 ‘보여주기식 사후 대응’보다 정작 심사 과정과 기준 설정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왜 제대로 된 정치력과 전략을 발휘하지 못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목포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재로도 향하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 등에서는 국회의원 2명을 둔 목포 정치적 결집력과 중앙당 차원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심사 지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학 측과 공조해 방어 논리를 짰어야 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선제적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강성휘 시장의 시정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강 시장이 지난 달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며 항의했지만 시장의 역할이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순천시가 과거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보인 반면, 목포시는 이미 확보한 대학 부지에만 안주해 추가적인 정주 여건이나 재정 지원 등 매력적인 유치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하 논란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서남권의 소외감과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막연한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의 오류를 입증할 구체적인 확보와 서남권 의료 공백 대안 등 실효성 있는 플랜B를 내놓아야 시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이 개최한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 중 진도 출신 젊은 전승자들과의 대화 학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 성료...세계화 발판

베트남 등 6개 국가 150여명 참석

전문기관과 MOU 국제교류 확장

‘씻김굿’ 유네스코 등재 추진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아시아 주요 국가와 손잡고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을 연계한 글로벌 발전 모델 구축에 나섰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2026 진도국제무형문화컨퍼런스'가 6개 국가(인도·중국·일본·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 전문가·전승자 등 15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학술 토론을 통해 진도 씻김굿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천리 일원 유엔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 인증, 진도 한 달 살기 등 지역 활성화와 유산 전승을 결합하는 실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제 교류망 확장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군은 인도 골가타문화유산협회를 비롯해 몽골 국립문화유산원, 중국 사천성 천극원 등 유수 전문기관들과 무형유산 보호 및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씻김굿, 육자배기 등 전통 공연을 학술

회의·지역 관광과 융합한 '진도형 타운 마이스(TOWN MICE)' 모델을 새롭게 선보여 군 단위 국제행사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태지역 공동연구, 청년 전승자 교류, 순회공연 등 후속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국제 교류 기반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진도 만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토대로 세계와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겠다”며 “무형유산 전승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함평군, 무인 방제 등 첨단기술 점검

농업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5일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주요 사업장에서 농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추진한 첨단 농업기술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센터에서 분야별 추진 현황을 청취한 뒤 ▲대동면 맥류 생산·가공 활성화 ▲라교면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보급 ▲나산면 애호

박 연중 생산 등 주요 시범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농기계 자율주행 시연과 함께 무인 방제, 자동 관수,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스템 등 신기술 적용 현장을 살펴며 생산성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농업인들은 실제 적용 과정의 경험을 나누며 기술 실효성을 높일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농업인 의견을 토대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첨단 기술을 발굴·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신안군, 내년 민생 안정·공약 이행 총력

본예산편성보고회 열어 유사사업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5일 “최근 김태성 군수 주재로 실·국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보고회를 개최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 증가 등 열악해진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관행적이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7년 예산 편성의 핵심 목표는 ▲민생 안정·지역 경제 활성화 ▲민선 9기 주요 공약 이행 ▲주민 체감형 현안 사업 마무리다.

특히 농어촌 르네상스, 복지·의료, 신재생에너지, 육·해상교통, 체류형 관광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민선 9기 핵심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부서별 예산 우선순위를 최종 조정한 뒤 2027년 본 예산안을 확정해 신안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신안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암군, 오늘 옛 대동공장서 주민 소통마당

문화재생 진행상황 공유 의견 수렴

수제맥주 양조장 등 문화공간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오랜 기간 지역 산업 중심이었던 옛 대동공장(사진)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선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옛 대동공장 일원에서 ‘대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주민 소통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청사진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영상 상영에 이어, 주요 시설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과거 영암 쌀을 가공·저장하던 정미소와 양곡창고였던 대동공장은 기존 건물의 역사적 흔적을 살리면서 다채로운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농가레스토랑과 신활력커뮤니티센터



가 시범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 양조장도 곧 문을 연다. 군은 향후 문화 예술아뜰리에, 대동광장, 대동라운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사업 설명과 시설 관람 후에는 대동광장에 서극단깃들의 ‘남도천지밥’ 마당극 갈라쇼가 펼쳐져 주민들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철 문화예술과장은 “과거 정미소가 미래 문화 거점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과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한우농가 현장 목소리 청취

생산비 절감·소득 향상 방안 모색

강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수는 최근 가업을 잇고 있는 2세 한우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생산비 절감 방안을 모색했다.

농가 방문은 한우 가격 상승세 속에서도 치솟는 사료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을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군수는 직접 축사에 들어가 한우 사육 상태를 살피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이는 ‘자기배합사료’ 제조·급여 과정을 점검했다.

강 군수는 농가 관계자와 자기배합사료의 장단점을 논의하며 단순한 산지 가격 상승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료비 등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축적된 노하우에 청년 농업인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더해진 가업 승계



농가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

군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고품질 한우 생산·경영 안정화 지원책을 강화하고 축산 2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위기의 해법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농가 스스로 생산비를 줄이려는 현장 우수 사례를 분석해 소득 향상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무안군, 청계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 조성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40억 확보

3층 규모 문화 공간 2030년 준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주요 생산 거점인 청계농공단지에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청계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군비 18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계농공단지에는 제조업과 도자산업이 집적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나 그동안 편의·복지 시설이

부족해 근로환경 개선목적이 높았다. 이에 군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청년층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 공모에 선정됐다.

청년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동아리실, 다목적실, 안전교육실, 북카페, 체육센터 등 근로자와 청년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함께 소통하고 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청계농공단지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친화적 산업 공간으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며 “삼향·일로에 이은 환경 개선 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